

#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와 지속 가능한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User Attitudes towards Private Public Libraries and Their Sustainable Operation

임 여 주 (Yeojoo Lim)\*\*

주 소 현 (Joo So Hyun)\*\*\*

###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의 사립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인식과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립 공공도서관의 고유한 가치와 지속 가능한 운영 조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0년 이상 운영을 지속해 온 두 곳의 사립 공공도서관을 사례로 선정하고, 관장·사서·직원·이용자와의 반구조화 면담을 중심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네 가지 주제로 정리된다. 첫째, 두 도서관은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대해 강한 정서적 소속감을 형성하며, 스스로를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도서관의 구성원이자 기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도서관은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독서 모임과 자원 활동을 통해 연결되는 만남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넷째, 재정 불안정, 인력 부족, 그리고 공동체적 관계의 밀도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이 관계 중심적 운영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 구조적 기반의 마련이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user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private public libraries in Korea, and to explore the distinctive value and conditions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uch libraries. Two private public libraries with over 20 years of continuous operation were selected as cas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library directors, librarians, staff, and user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d axial coding. The findings are organized around four themes. First, both libraries function as embedded members of local community networks, actively participating in neighborhood activities and documenting community history. Second, users developed a strong sense of emotional belonging and perceived themselves not merely as service recipients but as members and contributors to the library. Third, the libraries served as spaces for human connection, facilitating the formation of book clubs and volunteer activities that brought together diverse community members. Fourth, financial instability, staffing constraints, and interpersonal conflicts arising from the intensity of community relationships were identified as key threats to sustainabi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public libraries is sustained through relationship-centered management, while also highlighting that structural support—particularly stable funding for professional staff—is essential for long-term viability.

키워드: 사립 공공도서관, 이용자 인식, 지역 공동체, 지속 가능성, 공공성

Private Public Libraries, User Perception, Local Community, Sustainability, Publicness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yeojoolim@pusan.ac.kr / ISNI 0000 0004 7784 5407) (제1저자/교신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via@pusan.ac.kr / ISNI 0000 0005 0371 4065)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6년 2월 18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3월 5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1): 239-267,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1.239>

© Copyright ©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도서관법 제4조(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2025. 11. 11. 일부개정, 법률 제21090호)에 따르면,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된다. 이중 사립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다. 도서관법 제4조에서는 또한 도서관의 설립목적 및 그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도서관을 구분하는데, 이중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이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며,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칭하며,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는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공립 공공도서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지만, 민간에 의해 설립·운영되므로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도서관을 설립한 개인이나 단체의 철학과 가치관을 반영한 특색 있는 장서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지역사회의 특정 요구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다. 도서관 운영진이 이용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용자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하는 것도 많은 사립 공공도서관에서 볼 수 있

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체로 민간의 후원금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 보조금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1,296개관이며, 이 중 사립 공공도서관은 28개관이다. 이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이나, 프로그램 참가자 수나 지원 인력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사립 공공도서관이 5개관에 불과하나, 한 해 동안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의 수는 무려 4,677명에 달한다. 서울 역시 사립 공공도서관은 7개관인데, 한 해 동안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의 수는 3,343명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5, 393, 403).

이와 같이 이용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있으나,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공립 공공도서관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공공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공립 공공도서관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사립 공공도서관의 고유한 특성이 이용자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다(카비세바 굴잔, 2021; 허소희, 이용재, 2016). 최근 공공도서관을 공론장(public sphere)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이 시민 참여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연옥, 강영아, 2023; Sugeno & Koizumi, 2024). 그러나 이런 논의는 주로 공립 공공도서관을 대

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면서도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이용자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년 이상 한 지역에서 운영되어 온 한국의 사립 공공도서관 두 곳을 선정하여 심층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관장과 사서, 직원, 이용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자들의 인식과 태도란 도서관에 대한 인지적 평가, 정서적 반응, 그리고 행동적 지향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들은 사립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 이용자들의 만족도, 충성도, 도서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이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이용 경험과 무엇이 다른가? 둘째, 설립 주체의 철학과 운영 방식을 비롯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고유한 특성이 이용자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요소와 전략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고유한 가치를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한국 사립 공공도서관의 역사

한국에서 민간이 설립·운영하면서 공중에게

개방된 형태의 도서관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등장하였다. 당시 서구의 도서관 사상에 바탕을 두고 민중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 공공도서관 설립 운동이 펼쳐졌는데, 그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은 평양에 설립된 대동서관(大同書觀)이다. 평양의 지역 유지들이 설립 기금을 마련하여 개관한 대동서관은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출판사, 서점, 도서관의 기능을 모두 갖춘 곳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복합 공간이라 할 수 있으나, 무료 입관을 허용하고 보유한 장서를 일반에 대출하여 서북지방 신문화 운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때 근대적 성격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송승섭, 2019, 216-218;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년불명).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지 통치 체제에서 도서관 접근과 출판 활동이 제한되었으나, 동시에 공공도서관 제도 자체는 행정 체계 속에서 일정 부분 제도화되었다. 김포옥(1978, 34-35, 재인용: 류현숙, 2017, 104)에 따르면 1910년 조선에는 사립 공공도서관 3개관이 존재했고, 1932년에는 국립 도서관 2개관과 공립 도서관 17개관에 이어 사립 도서관 33개관이 존재했으며, 1942년에는 국립 도서관 2개관과 공립 도서관 26개관, 사립 도서관 15개관이 존재했다. 사립 도서관으로 명시된 도서관 중 사립 공공도서관이 몇 개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민간이 설립·운영한 도서관이 다수 존재했다는 것은 눈여겨볼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용훈(2020, 17)은 1934년 발행된 『朝鮮之圖書館』에 실린 '조선도서관통계'에서 공립 도서관이 17개관, 사립 도서관이 21개관 확인된 것을 두고 "민간 부문에서 책을 읽히고자 하는 선각자들의 노력 때문"일 것이라 주장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전쟁과 재건 과정에서 문화적 기반 시설이 크게 약화했으며, 공공도서관 역시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였다. 그중에서도 사립 공공도서관은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이용훈, 2020, 17). 한국도서관협회가 1955년 발간을 시작한 『한국도서관통계』에서 1959년 통계까지는 사립 공공도서관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가, 1960년(1959년 기준) 통계에서 사립 원주도서관 한 곳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도서관협회, 1960). 이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제도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김영석(2011, 315)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건립 역사를 설명하며 해방 이후에 건립된 최초의 공공도서관이 1964년에 건립된 한국학생도서관이며, 이는 공립이 아닌 사립 도서관이라고 밝혔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활발히 진행된 마을문고 운동은 1960년대 초반 전국에 20여 개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도서관의 빈자리를 채우고 농어촌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을 장려하는 민간의 자발적 실천이었다. 마을문고는 “농어민 스스로의 힘으로 조직, 운영”되었으며, “민중의 지식 접근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연옥, 2001, 60, 74)에서 공공성과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립 공공도서관과 맥을 같이 하며, 이는 이후 민간 기반 공공도서관 형성의 사회적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민간이 운영하는 독서 공간은 사립 공공도서관이라는 제도 범주로 분명히 제시되기보다는 문고와 노동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이후 1994년에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서는 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문고의 시설 및 자료 기준까지 규정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민간의 독서 공간인 문고가 도서관 정책의 틀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이 설립·운영하던 문고와 독서 공간은 기존의 보완적 독서기반을 넘어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어린이도서관 운동과 지역 기반 독서운동의 확산은 민간 문고와 독서 공간이 단순한 자료의 대출 공간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립 문고가 공공도서관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2000년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2004년 문화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사업’을 계기로 작은도서관은 정책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고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장덕현, 2011, 207). 이 과정에서 일부 사립 문고는 장서 기준, 시설 기준, 전문 인력 확보 등 공공도서관의 요건을 점차 갖추어 나갔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등록·전환되기도 하였다. 용인의 느티나무도서관은 사립 문고와 사립 공공도서관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느티나무도서관은 2000년 사립 문고의 형태로 출발하여 지역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을 확장하였고, 이후 재단 설립을 거쳐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되었다(최진선, 2020). 통계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공공도서관 통계에서는 운

영 주체별 분류가 보다 명확해지면서 ‘사립’이 독립적인 운영 주체 범주로 집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공공도서관 체계 내 하나의 유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즉, 1960~70년대의 마을문고 운동이 민간 독서 공간의 공공성을 형성한 토대였다면, 2000년대는 그 공공성이 정책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이라는 공식적인 도서관 유형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 2.2 한국 사립 공공도서관의 현황

2025년(2024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25)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한국의 사립 공공도서관은 28개관이다. 이를 개관연도별로 분류해 보면, 최근 10년 이내에 개관한 도서관이 16개관, 최근 11년에서 20년 사이에 개관한 도서관이 7개관, 지금으로부터 20년 이전에 개관한 도서관이 5개관으로,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표 1〉 참고). 최근 20년 이내에 개관한 도서관이 전체의 82%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사립 공공도서관이 비교적 최근에 확산된 제도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이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비교적 새로운 실천과 실험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구와 서울이 각

각 8개관과 7개관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경기(5개관)와 부산(3개관)이 따르고 있다.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에는 각각 1개관씩 존재한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대구와 서울 경기 등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 1개관씩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역적 분포가 아직 불균등함을 보여준다.

정규직 사서직 인원이 1명 혹은 2명인 곳이 대부분이며, 4명 이상인 곳이 3개관, 0.5명인 곳이 1개관, 0명인 곳이 5개관이다. 정규직 사서직 인원이 0명인 5개관 중 1개관은 비정규직 사서직 인원이 1명 존재하나, 나머지 4개관은 비정규직 사서직 인원 역시 0명으로 사서직 인원이 근무하지 않는 도서관이 4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사서직 인원이 1~2명에 그치는 도서관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이 최소 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부 도서관에서는 사서직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 인력 확보가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의 구조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수가 0명인 도서관이 8개관이며, 그 외 도서관은 적게는 10명, 많게는 402명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었다. 28개관 전체의 자원봉사자는 총 898명이며, 이 중 여성은 524명, 남성은 374명으로 여성 자원봉사자가 남성

〈표 1〉 개관연도별 사립 공공도서관의 수(문화체육관광부, 2025)

~'73년 (50년 초과)	'74년~'93년 (50-31년)	'94년~'03년 (30-21년)	'04년~'13년 (20-11년)	'14년~'19년 (10~5년)	'20년~'24년 (4년~0년)	계
1	2	2	7	9	7	28

자원봉사자보다 약 4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수가 도서관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은 사립 공공도서관 간 자원봉사자 규모가 크게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일부 사립 공공도서관이 전문 인력뿐 아니라 자원봉사에 크게 의존하는 운영 구조로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전체 자원봉사자 중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지역 문화 활동과 돌봄 및 교육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경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김영정, 2018; 백광진, 2009).

28개관 전체에서 운영되는 동아리는 총 128개로 나타났다. 이 중 독서동아리가 62개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동아리가 17개, 기타 동아리가 49개로 다양한 유형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었다. 독서동아리 참가자는 총 585명, 학습동아리 참가자는 총 100명, 기타 동아리 참가자는 총 358명이었다. 동아리 활동이 다수의 사립 공공도서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들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이용 공간을 넘어 이용자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독서동아리 외에도 학습동아리와 기타 동아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사립 공공도서관이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학습과 교류를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도서관 회원 등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나타났다(147,758명). 대구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록자는 서울의 36%에 그쳤다.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2024년 한 해 동안 총 219,973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이러한 결과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수적 분포가 반드시 이용 규모와 비례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방문자 수가 회원 등록자 수보다 크게 나타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은 사립 공공도서관 이용이 회원 등록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5년(2024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의 개별 도서관 원자료를 살펴보면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 총 25개

〈표 2〉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 및 이용자 수(문화체육관광부, 2025)

지역	회원 등록자 수	방문자 수
서울	147,758	175,084
부산	15,883	24,911
대구	53,205	65,198
경기	74,413	219,973
강원	651	4,000
충북	0	113,596
전북	2,034	7,201
전남	450	1,300
경남	7,517	2,600
전국	301,911	613,863

관<sup>1)</sup> 가운데 마을 주민·개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7개관, 재단법인이 설립한 도서관이 7개관,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기관이 설립한 곳이 3개관, 사단법인이 설립한 도서관이 2개관, 종교기관이 설립한 도서관이 2개관, 기업이 설립한 도서관이 1개관이었다. 통계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설립 기관의 특성을 알 수 없는 도서관은 3개관이었다. 마을 주민이 설립한 도서관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도서관은 홈페이지 도서관 소개 글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 주민을 위한 기관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설립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더불어숲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 인사말 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더불어숲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설립주체가 사단법인인 마하어린이도서관 역시 홈페이지 도서관 소개 글에서 “마하어린이도서관은 내 아이 뿐 아니라, 동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모두의 힘을 모으고 또 모아 만들어진 모두의 도서관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스스로를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형성·유지되는 공공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법적 분류상 ‘사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이념과 서비스 지향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이용자의 태도를 둘러싼 제반 사항을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하여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Mills et al., 2010; Yin, 2014). 개인, 기관, 이벤트 등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 존재하는 단위가 연구 대상(사례)이 될 수 있다(Kessler & Stafford, 2008; Rols, 2005).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에 관한 사례기술적(idiographic)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Babbie, 2012), 이것이 이 연구에서 취하는 입장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이라는 기관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 상생해 온 사립 공공도서관 두 곳을 선정하여 각 도서관이 보여주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경험을 분석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의 존재 의의와 지속 가능한 운영의 조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부산의 M 도서관과 경기도의 N 도서관이다. 질적 사례연구에서 사례 선정의 핵심 기준은 통계적 대표성이 아니라, 연구 질문에 비추어 얼마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있다(Patton, 2002). 이러한 관점에서 두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정되었다. 첫째, 두 도서관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이용자와의 장기적 관계 형성과 지역 공

1) 2025년(2024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28개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도서관 단위의 원자료를 기준으로 ‘공공(일반)’ 또는 ‘공공(어린이)’이면서 ‘사립’으로 분류된 기관을 추출한 결과 25개관이 확인되었다.

동체와의 연계를 탐구하기에 적합한 경험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M 도서관은 2005년, N 도서관은 2000년에 설립되어 각각 한 지역에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이용자와의 관계,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운영상의 시행착오는 지속 가능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둘째, 두 도서관은 선행 연구들에 의해 분석적으로 주목되어 온 사례이다. M 도서관은 이은희(2016) 및 허소희와 이용재(2016)에서, N 도서관은 최진선(2020), 카비세바 굴잔(2021)에서 각각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실천을 이해하는 사례로 다루어진 바 있다. 셋째, 두 도서관은 설립 주체와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면서도, 지역 주민을 주요 이용자이자 협력자로 설정하고 공동체 지향적 운영을 실천해 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서로 다른 조건의 두 사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실천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2023년 4월 7일부터 28일 사이에 M 도서관과 N 도서관을 모두 다섯 차례 방문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M 도서관에서는 관장 및 직원(활동가) 1인과의 면담, 이용자 그룹 1 및 이용자 그룹 2와의 포커스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고, N 도서관에서는 관장 및 사서 1인과의 면담, 이용자 그룹 3과의 포커스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용자 그룹 1, 2, 3은 각각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1, 2, 3으로, 면담마다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면담 참가자로 구성하였다. 동아리원을 면담 참가자로 선택한 이유는 동아리원끼리 이미 라포

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구자들과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관에서의 같은 경험을 두고도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단순히 자료 대출만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보다 도서관 이용에 얽힌 경험이 풍성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하였다. 이용자 그룹 1은 어린이책 수서 모임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곳으로, 다른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이들이 주요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이용자 그룹 2는 직접 페인팅하여 그림책을 커다란 책으로 만드는 창작 모임이다. 만들어진 책은 도서관의 스토리타임에 사용된다. 이용자 그룹 3은 메이커스 동아리로, 공예품, 밀랍초 등 자신만의 품목을 창작하는 로컬 창업자들이 모여 도서관 내 작업공간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협력하는 모임이다. 면담 참가자들의 나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였으며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거나(관장 및 직원) 도서관 활동에 참여한(동아리원) 경력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2개월로, 평균 기간은 9년 10개월이었다.<sup>2)</sup> 면담에 참여한 이들의 자세한 정보는 <표 3>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면담은 모두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반구조화 면담은 미리 준비한 질문을 바탕으로 하되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유연하게 추가 질문을 더하거나 주제를 확장할 수 있는 면담 방식으로, 연구자가 미리 설계한 틀에 응답자를 맞추려 하기보

2) 면담 당시 근무·활동하고 있는 도서관이 아닌 다른 도서관에서의 근무·활동 경험도 포함하였다.

〈표 3〉 면담 참가자들에 관한 세부 정보

도서관	참가자 분류	참가자 목록				면담 소요시간	면담 방식	
		이름 (가명)	나이	성별	도서관 근무/ 활동 참여 경력			
M 도서관	관장(A), 활동가(B) <sup>3)</sup>	A	30대	여	12년 3개월	1시간 40분	대면	
		B	40대	여	10년 3개월			
	이용자 그룹 1	C	50대	여	23년	1시간 25분	대면	
		D	40대	여	21년			
		E	50대	여	16년			
		F	20대	여	8년			
	이용자 그룹 2	G	20대	여	12년	1시간 15분	대면	
		H	50대	여	9년 1개월			
		I	50대	여	12년			
		J	40대	여	11년 5개월			
	N 도서관	관장(M), 사서(N)	K	50대	여	8년	1시간 50분	대면
			L	50대	여	8년 9개월		
이용자 그룹 3		M	50대	여	23년 2개월	1시간 20분	대면	
		N	20대	여	3년 7개월			
		O	30대	여	1년 6개월			
		P	50대	여	3년			
		Q	40대	여	1년			
R	40대	여	2년					
S	50대	여	3년 4개월					

다 응답자가 자신의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Henn et al., 2006, 162). 반구조화 면담은 그룹 내 각 개인의 독립적인 생각을 알고 싶을 때, 아직 덜 알려진 연구 영역에서 잠재적인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하며, 연구자가 융통성 있게 중요한 단서들을 놓치지 않고 탐구할 수 있게 도와준다(Adams, 2015, 494). 본 연구에서는 〈표 4〉의 질문 목록을 기본으로 면담을 진행하되, 면담 참가자의 답변에 따라 새로운 주제의 질문을 이어가기도 하였다. 면담

질문은 도서관 운영과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에 대한 태도와 인식, 그리고 그것이 형성된 배경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면담 진행 시간은 최소 1시간 15분에서 최대 1시간 50분으로, 평균 시간은 1시간 30분이었다. 면담은 모두 녹음 후 전사(transcribe)하였으며, NVivo를 사용하여 기술적인 코딩(descriptive coding)과 축 코딩(axial coding) 과정을 거쳐 의미를 구성하였다. 기술적인 코딩 단계에서는 면담 전사본에

3) M 도서관에서는 상근 직원 중 사서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활동가'라 칭하며, 활동가 B는 이에 해당한다. 면담 당시 M 도서관은 상근 직원들이 돌아가며 관장직을 맡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활동가 B는 면담이 진행되기 몇 달 전까지 M 도서관의 관장직을 역임하였다.

〈표 4〉 면담의 기본 질문 목록

주제	질문의 내용
직원 (관장, 사서,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의 이유</li> <li>• 지역 구성원이 이용하는 다양한 기관 중 사립 공공도서관이 갖는 의미</li> <li>• 기존 지역 주민과 새로운 지역 주민의 사이에서 도서관의 역할</li> <li>• 사립 공공도서관 자원 활동가 및 이용자의 특성</li> <li>•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방식의 강점과 약점</li> <li>• 사립 공공도서관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요소</li> </ul>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 공공도서관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의미</li> <li>• 사립 공공도서관 활동 중 의미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li> <li>• 지역 구성원이 이용하는 다양한 기관 중 사립 공공도서관이 갖는 의미</li> <li>• 기존 지역 주민과 새로운 지역 주민의 사이에서 도서관의 역할</li> <li>• 사립 공공도서관 자원 활동가 및 이용자의 특성</li> <li>•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방식의 강점과 약점</li> <li>• 사립 공공도서관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요소</li> </ul>

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단위를 식별하여 총 137개의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이후 축 코딩 단계에서는 초기 코드 간의 관계와 패턴을 분석하여 9개의 하위 카테고리 및 4개의 상위 카테고리로 통합하였다. 초기 코드, 코드의 정의, 예시 발화, 그리고 초기 코드에서 상위 카테고리로 통합되는 과정의 예는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코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코더 간 신뢰도 테스트(inter-coder reliability test)를 실시하였다. 실제 코딩에 앞서 파일럿 테

스트를 실시하여 정의가 불분명한 범주들을 찾아냈으며(Wimmer & Dominick, 1997, 127-128), 전사된 면담 기록(transcript) 중 이용자 그룹 1의 기록을 제1 저자와 공동 저자가 각각 코딩하여 둘 사이의 일치도를 계산하였다. 면담 기록의 양이 많지 않아 퍼센트 일치도 방법(percent agreement index)을 활용하여 계산하였고, 86.95%의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Lombard et al.(2002, 593)에 따르면 90% 이상의 계수(coefficients)는 모든 상황에서 수용 가능하며,

〈표 5〉 초기 코드와 코드의 정의 및 예시 발화의 예

초기 코드	정의	예시 발화
환대하는 도서관	도서관 직원이 이용자를 반갑고 소중한 개인으로 인식하고 대하는 태도	“도서관에 제일 첫 발을 들였을 때 도서관에서 제가 환대 받는 느낌, 이런 거를 M 도서관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언제나 가도 내가 진짜 여기 이 공간에 왔을 때 되게 환대받고 있구나, 그래서 자주 오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이, 그래서 첫 발을 딛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게 되었죠.”
마을 기록에 도서관이 중심이 됨	마을의 역사나 변화,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활동에서 도서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기록 활동의 거점이 됨	“마을의 어떤 자취나 기록이, 저희의 목적은 공동체성 강화거든요. 그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데 제일 중요한, 아주 중요한 도구는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기록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표 6〉 코드 매핑의 예

초기 코드	하위 카테고리	상위 카테고리
환대하는 도서관	'내 도서관'이라는 인식	도서관과 이용자의 관계 형성
마을 기록에 도서관이 중심이 됨	마을 활동의 기록	마을 안의 도서관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	도서관 공동체	타인과의 만남의 장

80% 이상의 계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코드 간 신뢰도 테스트 결과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4. 연구 결과<sup>4)</sup>

##### 4.1 마을 안의 도서관

면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가 '마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도서관이 마을 네트워크의 일부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기관과 협동조합, 부녀회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속해있는 마을 네트워크에서 도서관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두 도서관이 자리한 지역이 마을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지만, 도서관이 설립 초기부터 마을 커뮤니티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4.1.1 마을에서의 자리매김

M 도서관은 어린이책과 도서관 운동에 관심을 가진 다수의 여성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들 중 다수가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회원이자 공동육

아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었는데, 이들의 초점은 “어떻게 마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활동가 B)에 있었다. 이들이 추구하는 도서관은 같은 지향을 가진 소수의 회원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주민들 입장에서 처음에 도서관은 경계의 대상이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던 마을에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어느 날 도서관이라는 낯선 공간을 만들어 불쑥 들어온 것이다. 이에 도서관의 초기 설립 멤버들은 당시 마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한 단체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신뢰를 얻어 결국 마을 어르신들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었으며,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활동가 B는 초대 관장에게서 “이 마을을 지금까지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그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부를 받았다고 했다. 이는 M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로 전해지고 있다(활동가 B).

N 도서관을 설립할 당시 관장이 모델로 삼았던 곳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예전 이름은 난곡주민도서관)'이었다. 난곡주민도서관은 “주민들의 힘으로 운영되는

4) 이 장에서 서술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모두 면담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내용의 출처가 면담 내용이 아니라 단행본이나 학술논문 등의 다른 정보원일 경우에는 인용 표시를 하여 구분하였다.

도서관”(진정은, 2014)을 신조로 1989년 지역 청년들과 젊은 사서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곳이다. 비록 N 도서관은 관장이 홀로 설립하여 그 출발이 난곡주민도서관과 같지는 않았으나, 문고의 형태로 처음 도서관을 개관했을 때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 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함께 마을 도서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N 도서관 설립 당시 마을에는 보육시설이나 문화센터 등이 전무했다. 에스라 책 키즈와 토미 드 파올라 등 유명한 해외 그림책 작가들의 원서가 풍부했던 N 도서관은 당시 양육자들에게 만족스러운 문화 기관이었다. 30대의 여성 양육자들이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많이 찾았고 자연스럽게 자원 활동가가 되는 사람도 많았다. 지구의 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등 마을의 큰 행사가 N 도서관을 중심으로 열렸으며 어린이날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김밥 300줄을 싸서 나누어 먹는 등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울리는 공간이 되었다(관장 M).

마을에서 열리는 다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마을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도 한다. M 도서관의 경우, 마을 행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회의에 참석하여 마을의 다른 단체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홍보한다. 단지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 한때 M 도서관에서 활동가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이용자 G는 마을 단오 행사의 준비 회의에 도서관 관계자의 자격으로 참가한 경험을 예로 들며 M 도서관이 마을의 네트워크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을 네트워크의 중심에 도서관이 자리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다. N 도서관이 있는 마을에

는 협동조합, 공동체 공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 많고 환경단체와 자원순환 모임, 대안 학교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진 기관 및 단체가 있다.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있는 편인데(이용자 P), 여기에서 N 도서관은 모든 곳의 정보활동을 돕는 역할로 다른 기관 및 단체를 만나려고 노력한다. 관장 M은 도서관에서는 자료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자료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도서관이) 자꾸 연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서관 안에 마을의 여러 단체나 기관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거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공간을 내어주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 4.1.2 마을 활동의 기록

M 도서관은 마을의 역사와 활동을 기록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간다. 활동가 B에 따르면 초대 관장 시절부터 “마을 도서관에서는 마을을 기록해 놓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왔다. 기록 활동가로서 M 도서관에서 활동을 시작한 활동가 B는 도서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공간이어야 하며, 그 시작은 기록하는 일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도서관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도 그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공동육아 공동체와 공동 기획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마을에 새로 이사 오는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 마을을 소개하는 것이 골자였는데, 해당 기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뿐 아니라 출력하여 책자로 만들어 공유함으로써 관심 있는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해당 정보를 알 수 있게 했다(활동가

B: 이용자 F). 지역에 재개발이 결정되었을 때는 청소년들과 함께 철거 이전의 마을 모습, 철거되는 과정의 모습을 고스란히 사진에 담아 마을의 기록으로 남겼다. 오랫동안 마을에서 살아온 이들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된 이 작업은 재개발을 둘러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선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이주민들에게는 “여기, 지금 당신이 들어온 이 집이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라는 말을 건네는 것이다(활동가 B).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 M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기록의 가장 큰 목적은 “공동체성 강화”이다(활동가 B).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그 역동의 중심에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 4.2 도서관과 이용자의 관계 형성

면담을 통해 반복적으로 알게 된 것은 M 도서관과 N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보이는 도서관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용자그룹과의 면담과 관장, 사서, 활동가와의 면담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그저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서관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도서관에 이바지할 수 있음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용자들의 헌신을 촉진한 것은 이용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반가운 개인으로 인식하는 도서관 직원들의 태

도라고 볼 수 있다.

##### 4.2.1 ‘내 도서관’이라는 인식

“도서관에 제일 첫 발을 들였을 때 도서관에서 제가 환대받는 느낌, 이런 거를 M 도서관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언제나 가도 내가 진짜 여기 이 공간에 왔을 때 되게 환대받고 있구나. 그래서 자꾸 오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이. 그래서 첫 발을 딛고 지속적으로 오게 되었죠.” (이용자 C)

면담에 참여한 이용자의 상당수가 처음 M 도서관 혹은 N 도서관을 찾았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 기억 속의 도서관은 따뜻하고 아늑하며 편안하고 친절한 곳이었다. 나무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도 도서관의 긍정적인 인상에 한몫을 담당했다(이용자 F; 이용자 K). 도서관 운영자들의 친절함은 면담 대상자들의 가족들에게도 인상적인 것이어서, 이용자 I의 자녀들은 사서에게 “왜 그렇게 예쁘게 말하냐”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이용자 K의 배우자는 도서관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한 후 친절한 분위기에 감화되어 도서관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친절함이 항상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행위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말 걸기를 기다리는 이용자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대화를 진행하지만, 말 걸기를 원치 않는 이용자에게는 먼저 다가가지 않고 기다린다. 시간이 흐르면 그 이용자들이 소통을 원하며 다가오기도 한다(활동가 B; 관장 M).

환대는 다가감 뿐 아니라 이용자를 인지하는 방식으로도 전해진다. 이용자 I는 관장과 실무

자들이 도서관 자원 활동가들에게 “마음을 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한 말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냥 시간이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온 것뿐인데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한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용자 H와 이용자 J는 도서관 실무자들이 자원 활동가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점을 강조했다. 봉사자들이 도서관에서 하는 활동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늘 귀하고 감사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자원 활동가들이 도서관에 더욱 큰 애정을 갖고 일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도서관에 대한 애정은 도서관을 그저 방문하여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책임감을 갖고 운영에 참여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기도 한다. N 도서관에서 화장실 문에 달린 큐비클이 헐거워진 적이 있었다. 큐비클을 조이는 렌치가 없어 바로 고치지 못하고 놔두었는데 어떤 이용자가 관장을 찾아와 “화장실에 문짝이 떨어졌는데 우리 신랑 주말에 보내서 달아놓을게요”라고 말했다. 여느 기관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민원 게시판에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을 법도 한데 N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내가 기여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게 여기(도서관)에 보탬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관장 M은 말했다. 이용자 G가 M 도서관에서 활동가로 일할 당시 캐리어에 책을 담아 도서관 근처 넷가에서 컬렉션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캐리어를 빌려달라는 공지가 나간 후 며칠 만에 필요한 개수만큼의 캐리어가 다 모였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끄덕대며 캐리어를 들고 올라온 이용자들의 모습이 놀라웠다고 이용자 G는 말

했다. M 도서관을 소개할 때마다 “운영위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운영 주체가 마을 주민인 도서관이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는데, 그날 그 장면이 바로 그 말이 현실화한 순간이었다고도 했다.

‘내 도서관’이라는 마음가짐이 책임감이 될 때, 이용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이용자 C, E, F는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되도록 많은 프로그램에 참석하려 노력하는데,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에 겨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좀 빠지고 싶는데 분위기가 해줘야 될 것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이용자 E).

#### 4.2.2 도서관과 이용자의 동반 성장

면담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원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삶의 방향 설정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험을 공유해 주었다. 이용자 D는 M 도서관을 처음 방문했을 무렵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는데, 도서관에서 진행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내 안의 역사 쓰기’와 같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용자 E 역시 그림책 모임 등의 도서관 활동을 통해 서서히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 G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방황하던 시기에 M 도서관에서 활동가로 일하게 된 경우이다. 이용자 G는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던 중 도서관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도서관 활동에 관해 관심을 가

지기보다는 일로써 받아들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도서관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관련 전공으로 대학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이용자 C 역시 도서관 이용자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관련 전공을 공부하여 현재는 타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활동가 B는 M 도서관이 호흡이 아주 긴 도서관이라고 말했다. 마치 오랜 기간을 두고 사람을 사귀는 것과 같이, 이용자를 지켜보다가 그 사람의 재능을 발견하고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와 자원 활동 등을 권해보며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대화가 있었다. 대화를 통해 이용자를 알게 되고 그들의 고민과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N 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다. 관장 M은 N 도서관에서 자원 활동가이자 독서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한 이용자에게 대안 교육에 관한 컨퍼런스 참여를 권한 적이 있다. 누구보다 어린이들과 잘 어울리는 이분의 재능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현재 그 이용자는 전국 공동육아 연합회에서 유명한 교사로 활동 중이다. 사서 N은 진로 고민에 관한 참고봉사 서비스를 요청한 중년 이용자를 떠올렸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던 이용자에게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간호조무사였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갔을 때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그분을 발견하고는 서로 뿌듯해했던 경험이 있었다. 관장 M은 이 사례는 수백 개의 비슷한 성장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서와 이용자의 대화는 이용자를 성장시킬 뿐 아니라 도서관도 성장시킨다. N 도서관의

수서 회의 첫 번째 원칙은 “책에서 눈을 돌린다”이다.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위주로 책을 고르기보다는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이 꺼내는 화두, 현재 사회의 흐름, 사람들 삶의 고민 등을 바탕으로 수서하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고수하는 것은 이용자와의 대화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용자와 대화하다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사실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던지 깨닫게 되기도 하고, 도서관 입장에서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화를 통한 정보활동은 도서관 서비스의 확장에 밑거름이 된다(관장 M).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가 있기에 도서관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시작해 볼 수도 있다. M 도서관에서는 마을에 있는 학교에 찾아가거나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초대하여 책을 읽어주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은 길게는 18년, 짧게는 3년 이상 도서관에서 함께 호흡해 오고 있는 책 읽기 자원 활동가들이다. 활동 경력 10년 이상이 된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중심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도서관에서 지향하는, 마을에 있는 학교들과의 상생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는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다섯 번째 법칙은 M 도서관의 운영진들과 자원 활동가들 사이에서 초기부터 공유되어 온 개념이며, 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동아리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을 때 기존 동아리의 규칙과 성격을 고수하며 새 회원에게 기존 질서에 맞출 것을 요구하기보다 새로운 회원이 가진 재

능과 성격에 맞추어 동아리의 성격을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이다(이용자 C; 이용자 D). 이용자 C는 새로운 회원이 들어올 때, 이 사람으로 인해 변해 갈 동아리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하기도 하였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태도는 도서관이 이용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4.3 타인과의 만남의 장

면담에 참여한 이들에게 사립 공공도서관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물었을 때 공통으로 나온 답변이 책을 매개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책과 도서관이라는 키워드로 만날 수 있다는 것, 동시에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 4.3.1 도서관 공동체

“(이) 도서관을 알게 되면서 뭔가 마을 이웃이라고 할 만한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졌고” (이용자 F)

“저 예전에 다니던 도서관은 그냥 책만 대여해주고 반납하는 그런 기능밖에는 안 했는데 (이곳은) ‘사람을 좀 이어주는 그런 곳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용자 P)

면담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사립 공공도서관

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고 관계 맺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이들에게 도서관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곳이자(이용자 S), 일상의 소소한 정보를 주고받는 곳이며, 더 나아가 마을 내에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이용자 J). 관계의 시작이 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이들에게 장점으로 작용했다. 책이라는 목적을 두고 만나는 모임이기 때문에 소모적인 시간 보내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용자 H; 이용자 I; 이용자 K). 이용자 L은 도서관에서의 책 모임은 여타 사교 모임과 달리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뿌듯하기도” 하며 모임에서 알게 된 것을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S는 도서관 모임이 책에서 배운 지식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점에 집중했다. 차에 관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차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생활 공예에 관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생활 공예 모임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도서관은 다양한 콘텐츠를 모두 “아우르는 큰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책이 매개되어 사람들을 연결해 줄 뿐 아니라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책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보다 넓고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모임 결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유연한 정책이 있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면담에 참여한 사립 공공도서관들의 지향이기도 하다. 관장 A는 도서관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데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갈

이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고 말했다. 활동가 B는 M 도서관의 모든 자료실이 칸막이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혹여 나중에 “아무리 큰 도서관을 만들어도 연령(대별로 공간)을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장 M은 N 도서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만들 당시 “그냥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이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 아래 제한된 세상 안에 갇히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당시 도서관이 있던 지역은 재개발이 한창이었는데, 원주민 마을의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하며 이주민 이용자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원주민 마을의 어린이들이 자라나 청년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 독서회에 따라온 어린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는 자원 활동가로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는 본인들이 어렸을 때 도서관에서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도서관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인식은 함께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해 강화되기도 한다. M 도서관은 매년 도서관 생일잔치를 하는데, 비빔밥이나 김밥 만드는 재료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나누어 준비해 온다. 그렇게 준비한 밥을 다 함께 둘러앉아 나누어 먹고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돌린다(이용자 E; 이용자 I; 이용자 K). 평소에도 함께 밥 먹는 일은 일상이어서, 동아리 활동 등을 하러 도서관에 왔다가 다른 모임 사람들과도 함께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기도 한다(이용자 D).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도서관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

며, 이는 도서관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 4.3.2 동아리 활동 및 자원 활동

도서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동아리 활동과 자원 활동을 통해 강화된다. 면담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모두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자원 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이들도 많았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은 자연스럽게 동아리 활동이나 자원 활동 경험과 연결되어 나타났다. 동아리나 자원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다양했으나, 특히 도서관 관계자나 기존 동아리 회원의 권유로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오랫동안 책을 빌리는 이용자로 도서관을 이용해 온 이들을 눈여겨 본 사서나 관장, 활동가가 이용자에게 잘 맞을 것 같은 동아리나 자원 활동을 소개하며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용자 D; 이용자 F; 이용자 O; 이용자 Q; 이용자 S). 호기심이나 소속감에 대한 욕구, 작업 공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동아리에 들어온 경우도 적지 않았다(이용자 C; 이용자 P; 이용자 R).

이용자그룹 1과 이용자그룹 2는 오랫동안 지속해 온 동아리에 소속된 이들로, 같은 지향을 가진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하며 형성된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이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용자 H)이자 “일처럼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힐링”의 시간(이용자 I)이며, “부담 없이 진짜 편안하게”, “책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재미있는”, “편안하면서도 자극도 주는” 시간(이용자 F)이었다. 일부 면담 참가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때 그 편안함과 자유를 누릴 수 없어 무척 힘들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이용자 J; 이용자 L). 동아리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이 주는 의미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진 책임감이 있었다. 이용자그룹 2가 속한 동아리는 스토리타임에 쓰일 빅북(big book)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만든 책이 다른 동아리인 '책 읽어주는 동아리'에서 스토리타임에 활용될 때 큰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용자 I; 이용자 J; 이용자 K; 이용자 L). 이용자 K는 동아리가 오래 유지되려면 개개인의 취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본인이 맡은 일을 해내려는 책임감과 부득이하게 동아리 활동에 소홀하게 되었을 때 다른 회원들에게 갖는 미안함이 있었기에 동아리가 지금까지 굳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누군가 빠지거나 새로 들어올 때도 동아리 활동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동아리 활동의 틀과 규칙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이용자 H).

이용자그룹 3이 속한 동아리는 도서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업자들의 모임으로, 결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편안함보다는 서로를 알아가고 맞추어가는 과정에 있었다. 면담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자 Q는 원래 다른 활동이나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인데, 동아리에 들어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자극과 감화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는 “동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

다. 이용자 O는 동아리 회원들과 협업하고 함께 크리스마스 장터를 운영하면서 나눈 대화 속에 “아, 이 분은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구나”하고 느낄 때마다 동아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면담 당시 이 동아리는 동아리를 기반으로 한 임의단체를 만들기 위해 정관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각기 다른 목적으로 동아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가치와 방향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토론과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이용자 O; 이용자 P). 이를 통해 동아리 회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용자그룹 1, 2, 3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동아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의 색깔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서관은 동아리의 초기 결과물과 동아리 회원 모집에는 관여하지만, 이후에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동아리가 비교적 비슷한 성격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과 달리, 자원 활동의 경우 과거와 현재 사이에 성격의 변화가 있었다. N 도서관의 경우 사립문고 형태였던 도서관이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2007년부터 약 5년간 전이 과정이 있었다. 사립문고 시기 자원 활동가들은 “헌신적이라고 할 만큼” 도서관 자원 활동에 깊이 몰두하였다. 이들은 아동문학과 책 수선 등에 관해 열성적으로 공부하며 이를 도서관 프로그램과 활동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 활동가 본인도 성장의 경험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는 N 도서관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가졌던 입장이기도 했다. 자원 활동이 “사람들이 (도서관 활동에) 가장 밀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관장 M). M 도서관이 문을 열었던 초기에는 공동육아 조합원들이 자원 활동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관장과 활동가들이 모두 공동육아 조합원 출신이었으며, 도서관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이들도 그들이었다(활동가 B). 그러나, 사립 공공도서관 자원 활동에서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두드러졌던 시기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관장 M은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맞벌이 가구의 증가를 지적하였다. 실제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1990년 27.4%에서 2000년에는 35.4%로 늘어났고 2009년에는 40.1%, 2024년에는 48.0%로 증가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5; 통계청, 2009).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기혼 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도서관에서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은 과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M 도서관의 자원 활동가로 활동하던 공동육아 조합원들도 이제 여러 연령층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원 활동가 가운데 일부에 해당한다. 현재 M 도서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원 활동가는 주로 40~50대이며, 그 외에도 청년층, 청소년층, 시니어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자원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N 도서관의 경우 과거보다 부담이 덜한 업무를 자원 활동가들이 맡고 있었다. 주로 청소년과 20대가 단기 자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가 정리, 행사 사진 촬영, 신문 스크랩, 그림책 저자 기호 수정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 4.3.3 ‘보이지 않는 문턱’

도서관에서 활발하게 동아리 활동과 자원 활

동을 하면서 이용자들은 도서관 공동체에 더 큰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공동체는 때로 ‘그들만의 리그’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용자 F는 도서관에서 자원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도서관과) 약간의 거리감도 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친한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책을 읽거나 대출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자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다소 거리감있게 느껴질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문턱’은 N 도서관의 오랜 고민이기도 했다. 1999년 사립문고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했을 당시부터 자원 활동가의 역할이 도서관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N 도서관은 자원 활동가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그들만의 ㅇㅇ’”이라는 이야기나 “‘내가 감히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우리들의 공동체”를 바라는 자원 활동가들과 도서관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운영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진통을 겪으며 결국 도달한 것은 “느슨한 공동체”였다. 공동체라는 틀 안에 개인들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인이 서로 간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의 공동체인 것이다(관장 M). 실제로 현재 N 도서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은 N 도서관이 마을의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비해 문턱이 낮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열린 공간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이용자 O; 이용자 Q; 이용자 S).

도서관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인식이 모든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책을 읽거나 대출하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 이용자들도 존재하며, M 도서관과 N 도서관은 그런 이용자들에게도 열린 공간이었다. 이용자 E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도서관은 활발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하여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이용자 E에게 M 도서관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 대출과 반납만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이용자 가운데에도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책을 읽거나 대출하기 위해 수년 동안 도서관을 이용해 온 이들이 있었다(이용자 H: 이용자 K). 다만, 도서관에서 동아리 활동과 자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왠지 너무 개인적이다, 내가 될 잘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존재한다고 이용자 H는 말했다. 이용자 K는 도서관 운영자들이 친절하게 다가갈 때 그에 상응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용자들에게는 M 도서관이 잘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서관 공동체로 초대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손짓이 어떤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 4.4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의 어려움

사립 공공도서관은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관계와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는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이 함께 존재한다. 무엇보다 재정과 인력의 제약은 운영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

한다. 또한 사람과 사람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공동체적 운영 방식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조율의 과정을 수반한다. 관계의 힘은 도서관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관계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가치관의 차이나 역할 인식의 간극 역시 표면화되기 쉽다.

##### 4.4.1 재정과 인력의 어려움

사립 공공도서관의 재정은 대체로 개인이나 단체, 지역 시민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또한, 국공립 기관이나 문화재단, 공익 기관 등의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운영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도서관 운영자의 저서나 강의를 통해 수익금을 확보하기도 한다. 열거한 자원 모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정된 수익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과 인력의 어려움은 사립 공공도서관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자 숙제이다. 면담 당시를 기준으로 M 도서관과 N 도서관 모두 뼈뺀 예산 속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활동가 B는 “돈은 계속 드는데 돈은 계속 없어요.”라고 말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서 N 또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약점으로 “불안정한 재정”을 지적했다.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부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 정말 재정 상황을 보면 월급이 매번 들어오는 게 참 경이롭다 싶을 정도까지 생각될 때가 있어요.” (사서 N)

재정 문제는 인력 문제와도 밀접하게 얽혀 있다. 재정이 안정되어야 충분한 인력을 고용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N 도서관의 경우, 자원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일거리와 재료를 마련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역시 도서관 직원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따라서 자원 활동가가 늘어날수록 이를 지원할 직원도 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관장 M은 설명했다. M 도서관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있을 때마다 되도록 도서관 상근 직원이 한 명씩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동아리 활동 자리에서만 오가는 이야기들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도서관 상근 직원이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근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형성되는 활발한 분위기가 있었고, 동아리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높았다(이용자 C). 그러나, 재정이 부족해 상근 직원 수를 늘릴 수 없어 동아리 활동에 상근 직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쉬움이 크다고 활동가 B는 말했다. 면담 당시에도 활동가들은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는 M 도서관의 오랜 고민이었다.

“옛날 활동가들은 돈을 거의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처음에는 자기 돈을 내놓고 했고. 그런데 지향은 항상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계속했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은 발전해 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늘 어렵고. 그래서 그게 고민이 제일 되죠.” (활동가 B)

활동가들이 본인의 돈을 내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도

서관 활동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활동가 B).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만 도서관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생기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N 도서관의 오랜 고민 역시 직원들의 급여가 낮다는 것이었다. “급여를 엄청 높여야 훌륭한 사람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이사회 등에서 나누며 조금씩 급여를 인상해 왔으나, 여전히 충분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공립 공공도서관과 달리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사서의 전문적 성장이 쉽지 않다는 점 역시 사립 공공도서관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다(관장 M).

사립 공공도서관이 갖고 있는 재정과 인력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도서관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도서관 이름에 “마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도서관이 해당 “지역의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활동가 B). 면담 참여자들은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도서관의 후원자로서 함께 하며 도서관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이용자 I; 이용자 J; 이용자 K; 관장 M).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큰 금액의 후원이나 사용처에 제약이 없는 후원이 중요한데, 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소규모 후원자들의 지지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관장 M). 이용자 I와 이용자 J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던 때, 후원금이 줄어 도서관이 문을 닫을까 봐 무척 우려되었다고 했다. 특히, 이용자 J는 가정의 재정이 나빠진 상황에서도 M 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끊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과 같은 개인 후원자들의 노력이 지

금까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버티게 해 온 힘이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에 재정은 아주 많은 한 사람 한 사람, 1천 원, 5천 원, 1만 원을 내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조직이 더 단단해지죠,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게. 그런 구조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도서관은) 어떻게 해야 되지? 후원을 받으려면 일단 도서관의 역할을 더 잘 보여줘야 되니까.” (활동가 B)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 후원자들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도서관은 도서관이 추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활동가 B의 생각이었다. 도서관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확보된 개인 후원자들의 신뢰는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지고, 나아가 고액 후원까지 유치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4.4.2 관계의 밀도와 갈등의 필연성

사람과 사람이 모여 활동을 하는 곳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같은 지향을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도서관 설립 초기부터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한다. 누구 한 사람이 총대를 메는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으며 “어느 한 사람이 못해내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해 온 M 도서관의 경우(이은희, 2016, 81), 직원들 간 관계의 밀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보니 그만큼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높았다. 활동가 B에 따르

면, 누군가 “이건 양보할 수 없는데”라고 생각할 때 갈등이 생긴다고 했다. 서로 치열하게 논쟁한 후에 갈등이 잘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누군가는 도서관을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도서관을 그만둔 후에도 여전히 자원 활동가나 개인 후원자로서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은 모두가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활동가 B).

N 도서관은 사립문고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하고 5-6년 후 자원 활동가들과 관장 사이에 큰 갈등의 시기를 겪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립문고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했을 당시부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성장해 온 N 도서관은 사립문고 시절 “도서관 운영주체와 후원, 자원 활동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명확하게 가르기” 어려웠고, “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운영의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박영숙, 2014, 387). 이는 “도서관이라는 공공적 공간에서 비공식성과 관계성을 중시”하여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밀도가 높은 한국 사립문고의 특징(이은희, 2016, 32-33)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전하여 공간이 8배나 커진 도서관에서는 더 이상 문고 시절의 자원 활동 당면 시스템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사서를 충원하면서 도서관 운영의 책임과 역할에 변동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면, 이제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에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관장은 설명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자원

활동의 방향과 동아리 활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반응은 기대했던 바와 달랐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존의 역할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 관장이 놓쳤던 것은 도서관을 우리들의 공동체로 유지하고 싶어 한 자원 활동가들의 강한 소속감과 도서관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 온 주부 자원 활동가들의 인정 욕구였다(관장 M). 여성의 자원 활동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특히 전업 주부들이 자원 활동을 통하여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며, 자원 활동 대상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사 표시를 할 때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백광진, 2009, 106; 홍선희, 2015, 488-489). 이러한 경험을 얻을 기회가 사라졌다고 인식했을 때 자원 활동가들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N 도서관의 사례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공공성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공고한 공동체적 연대를 유지하려는 이용자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M 도서관 역시 초기 활동의 중요한 과제가 “누구들의 도서관 또는 끼리끼리 도서관이라는 선입관”을 불식시키고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이은희, 2016, 34). 이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보편적 공공성을 공고히 하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밀접한 관계망을 유지하려는 이용자들과의 심리적 저항 및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사립 공공도서관을 이용자

의 인식과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립 공공도서관의 고유한 가치와 지속 가능한 운영 조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두 곳의 사립 공공도서관을 사례로 선정하여 관장, 사서, 이용자와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립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정보 제공 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능하며, 이용자와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통해 관계 기반의 공공성을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내 도서관’으로 인식하며 정서적 애착과 소속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인식은 높은 만족도와 충성도로 이어졌으며,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도서관의 어려움이나 필요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형성해 가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시설 관리나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민원 제기자가 아니라 기여자로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태도가 나타났다. 이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이용 경험과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이용자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할 때, 공립 공공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식되는 반면,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계 중심적이며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소속감과 책임감은 일부 이용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때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암묵적 의무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강점이자 동시에 잠재적 한계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철학과 운영 방식은 이용자의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례 모두 설립 초기부터 도서관이 마을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지향을 분명히 하였으며, 도서관을 특정 계층이나 회원 중심의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공공적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철학은 운영 방식에서 구체화되었다. 이용자를 환대하고 존중하며 '귀한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는 이용자로서 하여금 도서관에서 환영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이용자를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하는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마을 활동의 기록, 지역 행사 참여, 다른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은 도서관을 지역사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였고,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인식하게 했다. 즉, 설립 주체의 철학과 가치관이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적 실천을 통해 이용자의 태도와 참여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례로 살펴본 두 도서관 모두 도서관 운영자와 이용자의 긴밀한 관계,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사회 안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도서관은 마을 네트워크 안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서관 운영자들의 헌신 역시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면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립 공공

도서관의 상근 직원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이 관계 자본뿐 아니라 운영자 개인의 헌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자의 낮은 보수는 도서관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용자에게는 암묵적인 책임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운영자에게는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역할이 지속적인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 공공도서관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계에 기반한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선의와 책임감에만 기대는 구조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인건비 보장과 전문 인력 유지가 가능하게 하는 지원 체계가 병행될 때 사립 공공도서관의 공공적 실천은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지역에 따라 정기 운영비 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례도 존재하나, 여전히 사업 단위 공모형 지원이나 프로그램 예산 중심의 구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단기적 사업 성과는 가능하나 상근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립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자료 관리, 프로그램 기획, 지역 기록, 공동체 네트워크 운영과 같은 공공적 기능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적 노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인건비에 대한 구조적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체계의 주변적 존재가 아닌 하나의 공공적 수행 주체로 인정하고, 최소한의 상근 전문 인력에 대한 기본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적 기능 수행을 전제로 한 제도적 지원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차원의 정책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단, 이러한 지원 모델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강점은 설립 철학과 가치에 기반한 자율적 운영에 있으므로, 지원이 행정적 통제 강화가 아닌 최소한의 공공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즉, 지원의 목적이 사립 공공도서관을 공립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공적 실천이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립 공공도서관 두 곳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다. 또한, 도서관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경험을 분석의 중심에 두고 사립 공공도서관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향후 다양한 지역과 규모의 사립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진행된다면 사립 공공도서관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구체적인 정책적·실천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가데이터처 (2025).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 김영석 (2011).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311-330.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311>
- 김영정 (2018). 마을공동체와 여성: 공공성과 젠더화된 돌봄의 딜레마. *기억과진망*, 38, 13-62. <https://doi.org/10.31008/MV.38.1>
- 김포옥 (1978). 日政下 韓國公共圖書館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34-35. 재인용: 류현숙 (2017). A comparative research of library law i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processes.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103-124. <https://doi.org/10.4275/KSLIS.2017.51.1.103>
- 도서관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339호.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5년(2024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 박영숙 (2014). *이용자를 왕처럼 모시진 않겠습니다*. 서울: 알마.
- 백광진 (2009).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송승섭 (2019). *한국 도서관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이연옥 (2001).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연구: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연옥, 강영아 (2023).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연구: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139-160.  
<https://doi.org/10.4275/KSLIS.2023.57.1.139>
- 이용훈 (2020). *해방 이후 한국 도서관의 흐름과 변화*. *경기도민이야기5: 도서관과 나*, 16-25.
- 이은희 (2016). *이야기들이 사는 집: 마을도서관 맨발동무*. 서울: 미래포럼.
- 장덕현 (2011).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과정에 관한 현상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203-221.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203>
- 진정은 (2014). *10분 도서관: 관악구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서울사랑*.  
출처: <https://love.seoul.go.kr/articles/3050>
- 최진선 (2020). *민간 아카이브의 구축과 관리: 느티나무도서관의 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167-173.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167>
- 카비세바 굴잔 (2021). *작은도서관의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적 가치: 경기도 용인 '느티나무 도서관' 사례*.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 통계청 (2009). *2009년 사회조사*. 재인용: 이승미, 김선미, 김은정, 구혜령 (2014). *한국사회 맞벌이부부의 일과 삶*. 2011년 선정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결과보고서 (NRF-2011-330-C00003).
- 한국도서관협회 (1960).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출처: 경기도메모리 디지털 아카이브. <https://memory.library.kr/collection/show/220000119>
-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년불명). *대동서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4257>
- 허소희, 이용재 (2016). *공공도서관의 커뮤니티 거점 역할: 맨발동무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도서관*, 83, 3-22.
- 홍선희 (2015).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비판사회정책*, (49), 474-519.
- Adams, W. C. (2015). *Conducting semi-structured interviews*. In Newcomer, K. E., Hatry, H. P., & Wholey, J. S. eds.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New Jersey: Jossey-Bass, 492-505.
- Babbie, E. R. (2012).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13th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 Henn, M., Weinstein, M., & Foard, N. (2006). *A Short Introduction to Social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 Kessler, R. & Stafford, D. eds. (2008). *Collaborative Medicine Case Studies: Evidence in Practice*. New York, NY: Springer.
- Lombard, M., Snyder-Duch, J., & Bracken, C. C. (2002). Content analysis in mass communication: Assessment and reporting of intercoder reliabil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8(4), 587-604. <https://doi.org/10.1111/j.1468-2958.2002.tb00826.x>
- Mills, A. J., Durepos, G., & Wiebe, E. eds. (2010). *Encyclopedia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Rolls, G. (2005). *Classic Case Studies in Psychology*. London: Hodder Education.
- Sugeno, Y. & Koizumi, M. (2024). Research trends in public libraries as public spher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opic modelling with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ibri*, 74(3), 289-304. <https://doi.org/10.1515/libri-2024-0041>
- Wimmer, R. D. & Dominick, J. R. (1997).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Yin, R. K.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Koang-Jin (2009). *An Exploratory Study on Promoting Female Volunteer Service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Chang, Durk Hyun (2011). A descriptive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es in smal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203-221.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203>
- Choi, Jiinsun (2020).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ivate archives: The case of Neutinamu Librar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3), 167-173.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167>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n.d.). Daedongseogwa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vailable: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4257>
-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Promo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14339.

- Heo, So-Hee & Lee, Yong-Jae (2016). A study on the role of community anchors of public libraries: A case of the Manbaldongmu public library. *Digital Library*, 83, 3-22.
- Hong, Seon-Hee (2015). A qualitative study on the volunteer work experience of middle-aged women.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49, 474-519.
- Jin, Jeong-Eun (2014). 10-Minute Library: 'Nangok Residents'Library Saesup' in Gwanak-gu. Seoul Sarang. Available: <https://love.seoul.go.kr/articles/3050>
- Kabysheva, Gulzhan (2021). Community Activities and Social Value of Small Libraries: Case Study on the Small Library "Neutinamu" in the Yongin City, Gyeonggi Province. Master's thesi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im, Po Ok (1978). Study on the Korean Public Libraries under the Period of Japanese Rule.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Cited in: Ryu, Hyeonsook (2017). A comparative research of library law i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process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103-124. <https://doi.org/10.4275/KSLIS.2017.51.1.103>
- Kim, Young Jeong (2018). Urban community-building projects and women: The dilemma of publicness and gendered care. *Memory & Vision*, 38, 13-62. <https://doi.org/10.31008/MV.38.1>
- Kim, Young-Seok (2011).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among local governments in Seou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311-330.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311>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60). *Korean Library Statistic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Available: Gyeonggi Memory Digital Archive. <https://memory.library.kr/collection/show/220000119>
- Lee, Eun-Hee (2016). *The House Where Stories Live: Village Library Maenbaldongmu*. Seoul: Mirae Forum.
- Lee, Yeon Ok & Kang, Young Ah (2023). A study on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as community public spheres: Focused on the case of Seongbuk public librarie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7(1), 139-160. <https://doi.org/10.4275/KSLIS.2023.57.1.139>
- Lee, Yeon Ok (2001). *A Study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ublic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Yong-Hoon (2020). Trends and changes in Korean libraries since liberation. Gyeonggi

Residents' Stories 5: Libraries and Me, 16-25.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5). Public Library Statistics Survey Results Report for 2025 (based on 2024 data).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5). Regional Employment Survey (Second Half of 2024): Employment Status of Dual-Earner and One-Person Households.

Park, Young-Sook (2014). *We Will Not Treat Users Like Kings*. Seoul: Alma Publishing.

Song, Seung-Seop (2019). *History of Korean Librarie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Statistics Korea (2009). 2009 Social Survey. Cited in: Lee, Seung-Mi, Kim, Sun-Mi, Kim, Eun-Jung, & Koo, Hye-Ryoung (2014). *Work and Life of Dual-earner Couples in Korean Society*. Final Report of the Social Sciences Korea (SSK) Research Support Program Selected in 2011 (NRF-2011-330-C00003).

